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POLL)-연준, 내년 3 분기 금리 인상 예상
 - ◇ (분석)-주요 중앙은행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시험대에 오른 소통 기술
 - ◇ (초점)-은행권 리보 전환 준비 9 부능선 넘었다..금감원 내부모형 승인만 남아
 - ◇ (초점)-연말 달구는 채권 롱-숏 논리전.. 속도조절+새정권 vs 美조기인상+韓추경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면서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프랑스 전투기들 근처를 비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했다. (러시아 국방부 배포/로이터)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10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81.3	-0.1%	-8.0%	+6.5%	유로	1.1311	0.0%	-7.4%	+8.9%
100엔 대비	1,041.4	0.4%	1.0%	+1.1%	엔	113.38	-0.5%	-8.9%	+5.2%
유로 대비	1,335.7	-0.1%	-0.7%	-2.3%	위안	6.3778	0.0%	2.4%	+6.7%
위안 대비	185.33	-0.2%	-10.2%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5,970.99	4.0%	17.5%	+7.2%
코스피	3,010.23	1.4%	4.8%	+30.8%	나스닥	15,630.60	3.6%	21.3%	+43.6%
코스닥	1,011.57	1.3%	4.5%	+44.6%	S&P500	4,712.02	3.8%	25.5%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32.80	1.6%	-4.4%	+19.8%
국고채 3Y	1.805%	-9.5bp	82.9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2.000%	-2.7bp	66.5bp	-14.5bp	미국채 2Y	0.654%	6.1bp	53.3bp	-144.0bp
국고채 10Y	2.201%	-3.3bp	48.8bp	+3.0bp	미국채 10Y	1.482%	12.6bp	57.0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1.67	8.2%	47.7%	-20.5%	한국 5Y	20.8bp	-0.2bp	-1.1bp	+0.1bp
금(현물)	1,782.51	-0.1%	-6.0%	+25.0%	일본 5Y	17.3bp	-0.7bp	2.2bp	-4.5bp
TR상품지수	3,303.99	0.2%	23.3%	+7.8%	중국 5Y	44.5bp	-7.9bp	16.5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2월 13일(월)>

- 금감원,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관세청, 12월 1-10일 수출입 잠정치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5:30)

<14일(화)>

- 한은, 11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09:00)
- 금감원, 10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11.2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5일(수)>

- 통계청, 11월 고용동향(08:00)
- 한은,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16일(목)>

- 기재부·한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기재부 1차관, 외환건전성협의회(09:00, 비공개)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 한은 이주열 총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설명회(14:00)

<17일(금)>

- 기재부, 12월 최근 경제동향(10:00)
- 한은,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2월 13일(월)>

- 일본 10월 기계류주문 (08:50)
- 일본 4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08:50)

<14일(화)>

- 일본 10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10월 산업생산 (19:00)
- 미국 11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미국 11월 PPI 최종수요 (22:30)
- 연방준비제도 FOMC 금리 결정 회의 (~15일)

<15일(수)>

- 중국 11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1~11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11:00)
- 중국 11월 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2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11월 수출입물가·소매판매 (22:30)
- 미국 10월 기업재고·소매재고 수정치 (자정)
-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16일(목)>

- FOMC, 금리 결정 발표(04:00)·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04:30)
- 일본 11월 수출입 (08:50)
- 일본 1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BOJ, 통화정책회의 (~17일)
- 유로존 12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회의록 공개 (21:00)
- ECB, 금리 결정 발표 (21:45)· 기자회견 (22:30)
- 미국 11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2:30)
- 미국 11월 산업생산 (23:15)
- 미국 12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17일(금)>

- 미국 12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01:00)
- BOJ, 금리 결정 발표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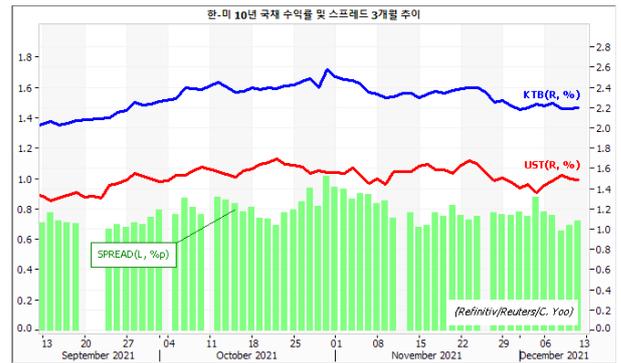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최대 이벤트인 미국 연준 정책회의 결과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등락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70-1190 원이다.
-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연준의 긴축 속도 둔화 가능성이 잠시 저울질되기도 했지만, 관련 불안이 점차 진정되고 있는 만큼 연준 긴축 기조에 대한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금융시장은 올해 마지막 연준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채 내년 시나리오를 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연준의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금리 점도표 변화가 가장 큰 관심사다.
- 최근 로이터 조사에서는 연준이 내년 3 분기에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0.25~0.50%로 25bp 인상하고, 이후 4 분기와 2023년 1 분기, 2 분기 등 세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 또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그리고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주요국 정책 차별화가 뚜렷해질지, 그리고 이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 최근 달러/원은 역외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가 확연하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완만한 연말장세다. 그 결과 1170-1180 원대에 대한 좁은 박스권이 굳혀지는 모양새다.
- 이번 주 주요국 통화정책 이벤트를 무난하게 소화한다면 이같은 박스권 장세는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롯이 수급처리 장이 형성되는 데 따른 변동성 장세는 열려줘야겠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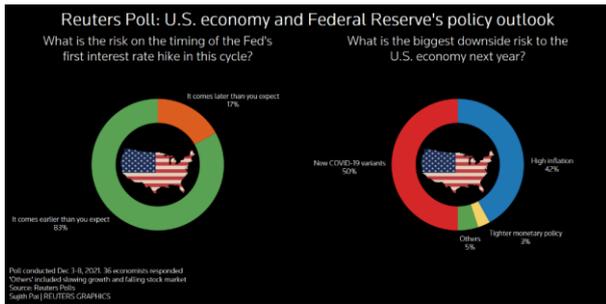
- 지난주 시장은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내용 해석을 두고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 한은이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 때문일 수도 있다.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관심이 대출금리 상승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 대출금리 안정을 위해선 전반적인 시장금리의 안정이 필요한 만큼 이 총재가 이전과 같은 강경 자세로 시장을 자극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내년 연말 기준금리를 1.75%까지 반영하고 있던 운용역들이 한 발 물러서며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
- 이같은 국내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한국시간으로 16 일에 발표될 미국 FOMC 회의 결과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월 1200억달러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종료를 몇 개월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달 이미 밝혔다. 시장에서 당초 내년 6 월로 예상됐던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3 월 정도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여기에 연준의 점도표 조정으로 조기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폭발할 경우 미국 국채금리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다만, 이미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한 한국의 경우 연준발 정책정상화의 파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진단이다.
- 물론 연말을 앞두고 국내기관들은 무리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국인이 얇은 호가를 틈타 공세를 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POLL)-연준, 내년 3 분기 금리 인상 예상

벵갈루루, 12월 09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3 분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했다. 이는 한 달 전의 내년 4 분기 인상 전망보다 빨라진 것이다.

로이터가 12월 3~8일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연준은 주요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내년 3 분기에 0.25~0.50%로 25bp 인상하고, 이후 4 분기와 2023년 1 분기, 2 분기에 세 차례 추가 인상하리라 전망됐다.

연방기금금리는 2023년 말까지 1.25~1.50%에 도달하리라 예상됐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응답자 36명 중 80% 이상인 30명은 현 사이클 동안 첫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리스크는 조기에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16명은 내년 2 분기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5명은 이르면 다음 분기에도 가능하리라 전망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연준의 내년 2 분기 금리 인상을 점친 응답자는 5명뿐이었고, 1 분기 금리 인상의 경우 4명이었다.

한편 내년 미국 경제의 최대 하방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6명 중 18명이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 답하고 15명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등 의견이 나뉘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현 분기와 내년 1 분기에 계속 4%를 상회하다가 내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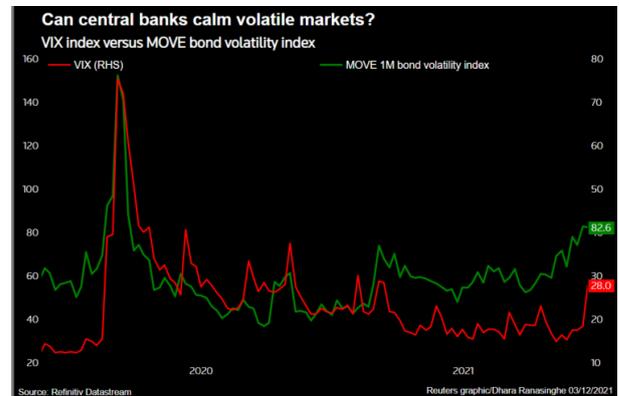
반기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지난달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주요 중앙은행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시험대에 오른 소통 기술

런던, 12월 07일 (로이터) - 올해 중앙은행들의 정책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금융시장은 12월 열릴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정책회의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올 한 해 중앙은행들은 시장 혼란을 자주 초래했다. BoE는 지난 11월 5일 시장의 전망을 깨고 정책을 동결했으며, ECB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반박했지만 자신 없는 모습이었고, 호주 중앙은행은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철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를 약 1주일 앞두고 통화 및 채권 변동성 지표가 수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산 가격 변동성 지수가 급등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정책회의에 나서는 첫 타자는 연준으로, 12월 15일 발표되는 정책 성명에서 자산매입 테이퍼링 가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는 BoE 정책회의가 열리며, 이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ECB가 두 가지 주요 채권매입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통화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정확한 비즈니스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달

리 끈질기고, 공급망 문제가 경제 회복세를 위협하고,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특히 더 어려워지고 있다.

노던 트러스트의 칼 탄넨바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황은 중앙은행들의 의사소통에 폭풍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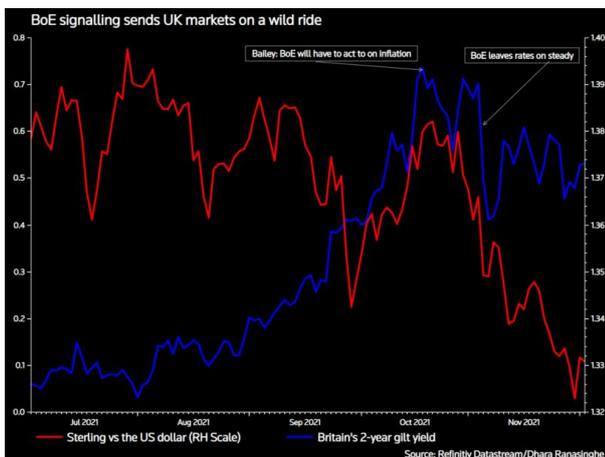
과거와 비교했을 때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앙은행들의 의사소통이 더 복잡해졌다는 점은 투자자들도 동의한다.

글로벌 주식 가치는 100 조달러에 육박해 판데믹 이전보다 약 2 배 높은 수준이며, 정부 지출이 급등하면서 채권시장은 확대됐다. 자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경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앙은행의 정책 신호가 미치는 영향은 시장을 뛰어넘는다. 영국 은행들의 경우, 11 월 BoE의 금리 인상을 자신했기에 정책회의 전 주택 대출 비용을 인상했다.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심리가 급변하는 시장에서 이같은 메시지 전달은 보기보다 어렵다.

이에 시장에 미리 신호를 주는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베일리 BoE 총재는 가이드스 제공하지 않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중앙은행을 신뢰할 수 있는가

BNP 파리바에셋매니지먼트의 리처드 바웰 거시 리서치 책임자는 12 월 정책 긴축을 진행하는 중앙은행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비추어 이같은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리스크는 시장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베일리 BoE 총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바웰은 베일리 총재가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끌어올린 후 이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횡수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언론 역시 베일리 총재에게 '신뢰할 수 없는 2 번째 남자 친구'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는 간혹 정책 신호와는 다르게 행동했던 마크 카니 전 BOE 총재의 별명에서 따온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지난 10 월 말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성의 없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유로 가치가 급등하고 채권이 타격을 입으면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바로 그다음 주 그는 금리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고 이에 시장 움직임이 반전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신이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그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의회에 출석해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 회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버려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약세를 보였던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스테이트스트리트의 티모시 그라프 EMEA 거시 전략 헤드는 파월 의장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높이 평가하며, 2011~2012 년 위기에서 유로존을 이끌었던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의 솔직함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다소 너그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연초 인식에서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초점)-은행권 리보 전환 준비 9 부능선 넘었다..금감원 내부모형 승인만 남아

서울, 12월 07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달러 리보 익일물과 1·3·6·12개월물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파생상품 계약의 중단을 앞두고 국내 은행들이 SOFR(국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기반 거래를 위한 주요 조건들을 확정하고 시범 거래를 마쳤다.

시장의 거래 기준안이 확정된 만큼 금융감독원의 은행별 내부 모형 승인만 완료되면 내년 SOFR 기반 거래를 위한 준비는 완료될 전망이다.

▲ 은행권, SOFR 기반 거래 관행 확정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서울 지점의 스왑 담당자들은 지난달 CRS 시장에서 달러 리보금리를 대체하기 위한 거래 관행을 확정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앞으로 리보금리를 대체해 SOFR OIS(Overnight Index Swap, 하루짜리 초단기 외화 금리)를 가중평균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 이자 교환 주기를 3개월로 하는 데 대해 일부 국내 은행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추가 논의를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틀렛프레본, 트래디션, 한국자금융재 등 스왑 중개사들은 11월 중순부터 바뀐 관행을 준용해 호가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은 만큼 일부 기관 중심으로만 레퍼런스 금리를 제공받고 있는 만큼 비는 가격이 많아 중개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외국계 은행의 트레이딩 헤드는 "지금 일단 거래가 되는지 1천만달러 정도씩 시범적으로 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표준모형 사용시 BIS 비율 압박.. "금감원 내부 모형 승인 시급" 지적

문제는 SOFR을 기반으로 한 수익률 곡선의 평가다. 은행들은 SOFR를 적용했을 때 기존 리보금리를 적용했을 때와 수익률 곡선상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내부 모형에 의거해 계산한 새로운 상품의 약정을 금감원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아직 이 과정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내부 모형을 승인받지 못한 곳은 표준모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규 거래를 표준모형으로 평가할 경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SOFR 기반의 거래에 나서기 위해선 금감원의 내부 모형 승인이 완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 국내 은행 운용부장은 "금감원의 내부 모형 승인을 연말까지 받는 걸로 진행 중"이라며 "만약 내부 모형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리보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은행들의 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모두 표준모형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 경우 BIS 비율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시급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C 국내 은행 운용부장은 "일단 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냈다"며 "이제는 금감원에서 연말까지 내부 모형 승인을 해주느냐만 남았다"고 말했다.

▲리보금리 전환기 유동성 감소 여부 초점

내년 초 리보 기반 신규 파생상품 계약이 중단됐을 때 시장 혼란과 함께 유동성 감소가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 착실히 준비해 온 외국계 은행과 달리 국내 은행들의 대응이 미진해 거래 위축 여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개시증거금을 교환하는 제도가 지난 9월에 시행된 후 원화 담보 설정 문제로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 거래 라인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앞의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내년 초에 리보 전환 이슈로 시장이 위축되기에는 대기 물량이 워낙 많다"며 "손님들은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 스왑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쿼트해야 하고 커버해야 하니까 리보 거래에 예외조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SOFR로 거래가 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 국내 은행 운용부장은 "고객 헤지 물량이 있는데 그걸 안 해줄 순 없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SOFR 기반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환기에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시스템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곳도 있을 것"이라며 "고객들이 SOFR에 대해 얼마나 이해도를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점)-연말 달구는 채권 롱-숏 논리전..속도조절 + 새정권 vs 美 조기인상 + 韓 추경

서울, 12월 8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넘는 등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말 채권시장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불확실성과 별개로 코로나 19 확진자의 단기 급증이 한국은행의 내년 기준금리 조정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롱 논리에 힘을 보탠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수급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롱 논리에 경도된 접근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코로나 급증에 韓 통화당국 속도 조절 기대 '다시 한번'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31분 현재 3년 국채 선물 12월물은 전날보다 14푼 상승한 109.07, 10년 선물은 57푼 오른 125.12에 거래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했음에도 국내 채권시장은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거세게 일었다.

이같은 분위기에는 이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분석이다. 질병관리청은 8일 0시 기준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1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의 4954명보다 2천명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4일 발표된 직전 최다 기록 5352명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걸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통화정책 기대감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물가 설명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월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루뭉술하게 밝힌 바 있다.

1월 초에 금통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번 물가 설명회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그널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황상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1월 기준금리 인상이 유보되면 2월 금통위 회의 때는 3월 대선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예상과 달리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가 가미된 분석이다.

A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11월 금통위 회의가 열릴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천명대였다"며 "이제 1만명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선 퇴임 전까지 기준금리를 1.25%로 올리고 싶을 수 있지만 이미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 상황에서 다른 금통위원들의 속도 조절 요청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만약 물가 설명회에서 별다른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외국인이 연말에 롱 공격을 개시할 경우 채권 강세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3월 이후 새롭게 들어설 정권의 스탠스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내년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새

정부가 적어도 기준금리 인상을 반기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B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채권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권 초반에는 정책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경기 확장이 필연적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페이스로 가져가는 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국내 통화당국의 정상화 속도는 지난 10여년을 감안할 때 가장 빠르다"며 "우리가 먼저 움직인 만큼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속도도 느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해 기억 벌써 잊었나?.." 신중 접근 지적도

반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채권시장의 랠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5월 이후 국내 통화당국의 속도 조절을 예상하고 움직였던 롱 포지션이 모두 크게 당했다는 학습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에 새 정권이 들어서 후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해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수급 압박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지금 시장에 통화당국의 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내내 그러다가 당했다"며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점도표에서 내년 3월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 국내 캐리 랠리에 대한 전망도 복잡해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규모 재정 편성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추경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이 받는 압력은 낮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부각된 재료들이 모두 양방향으로 열려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방향성 트레이딩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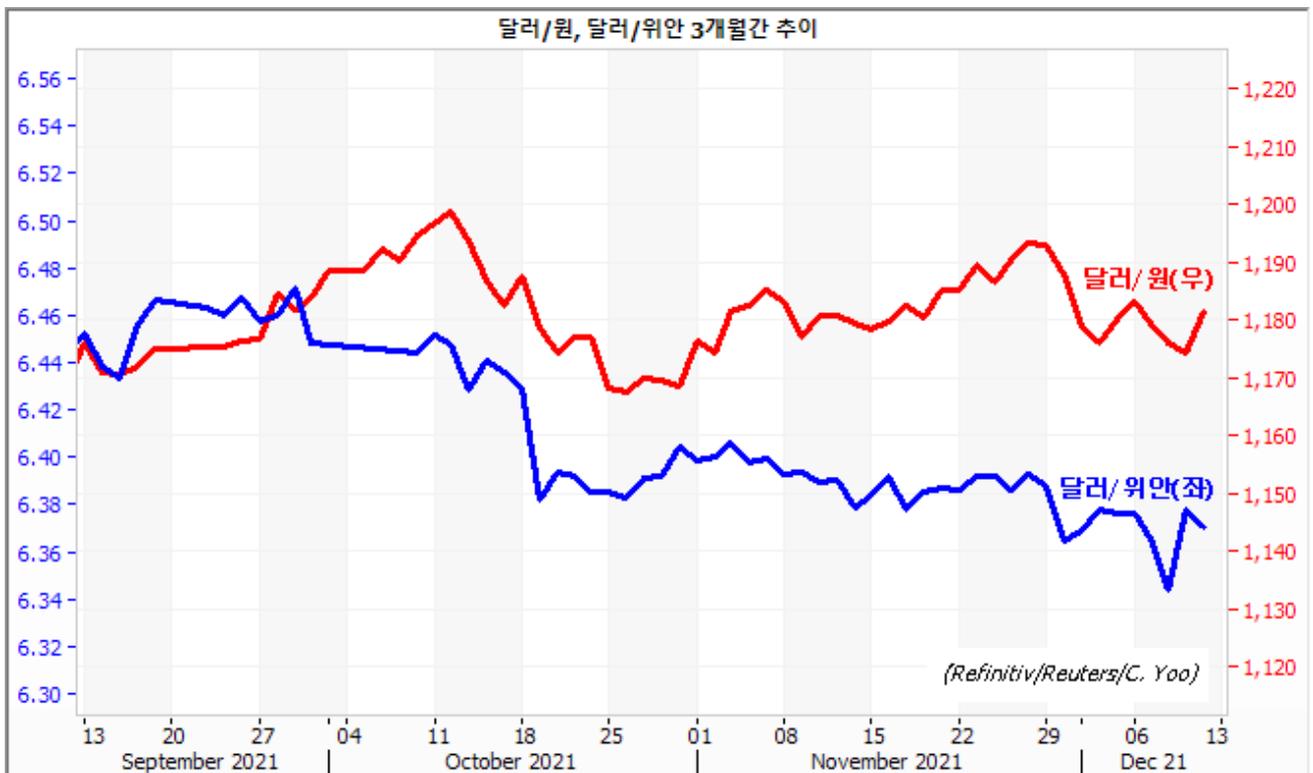
D 국내 은행 스왑 딜러는 "시장 금리가 고점에서 30bp 이상 랠리를 한 상황"이라며 "여기까지 내려온 수준에서 올해가 마감되면 다들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방향, 오미크론의 정체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시장이 한은의 의도를 미리 예단해 이달에 미리 랠리를 펼치는 게 어떤 의미에선 가장 불행한 12월의 전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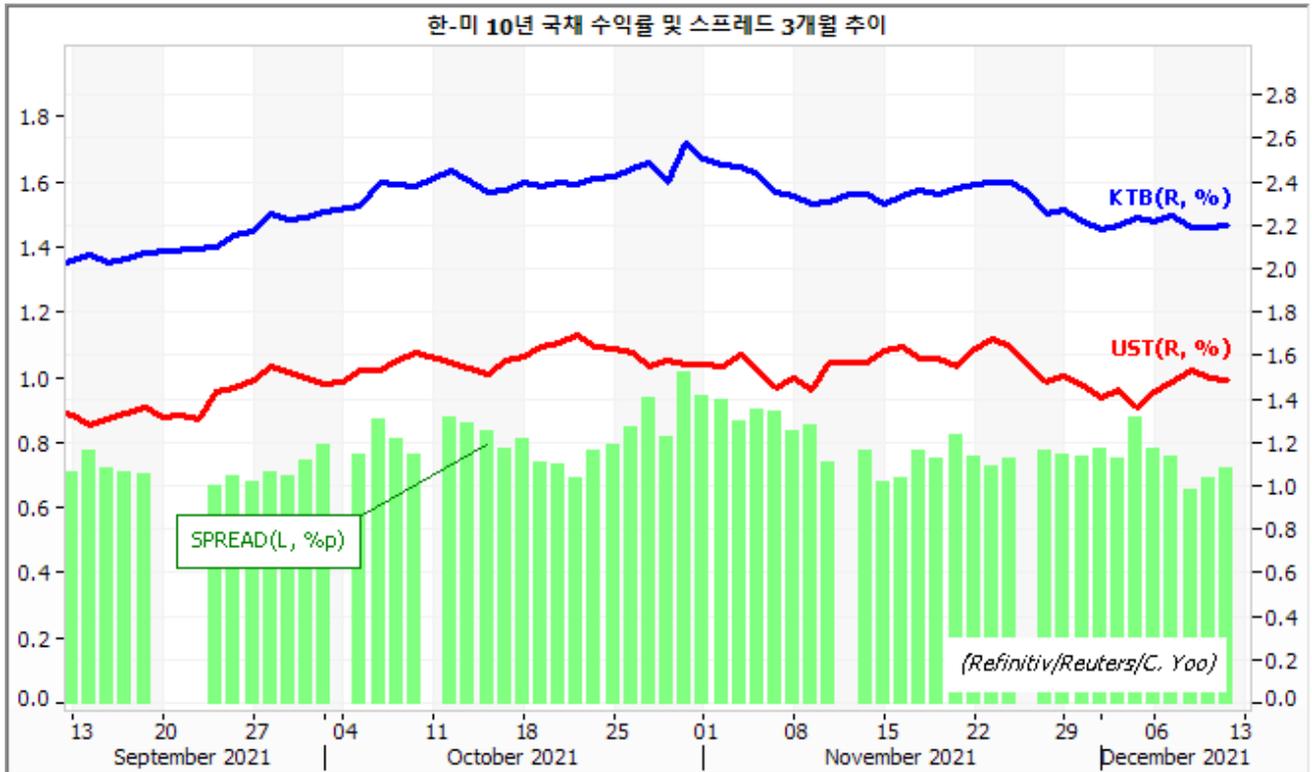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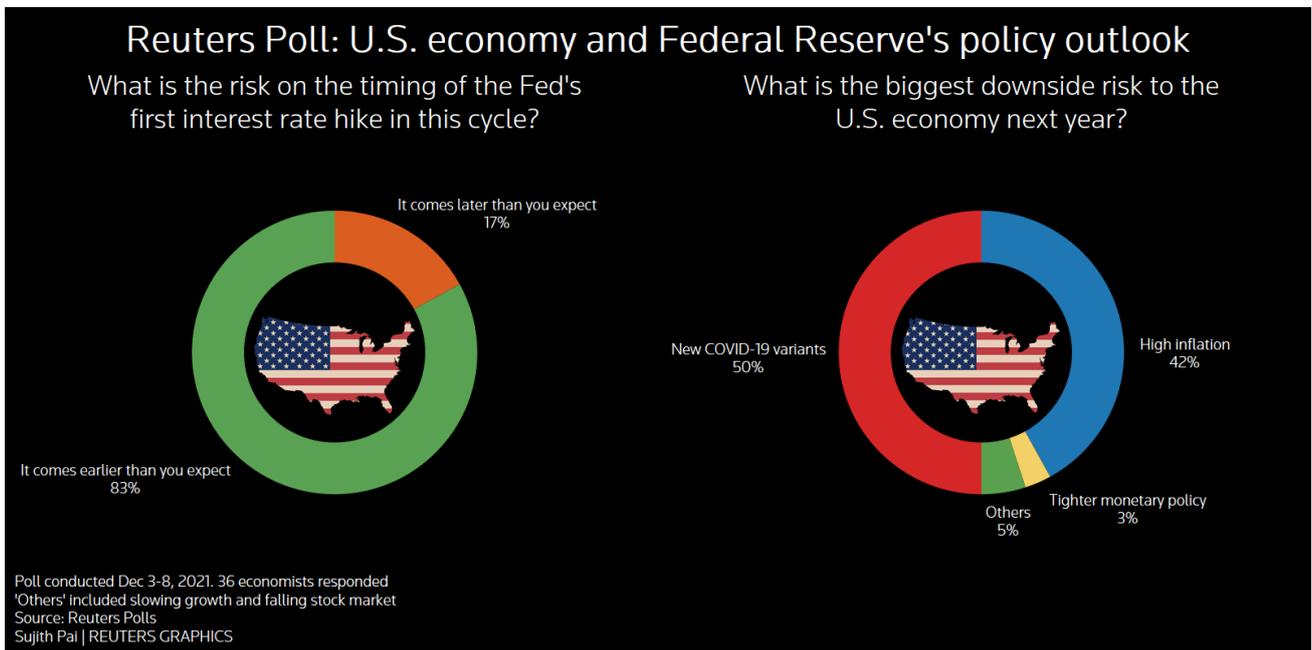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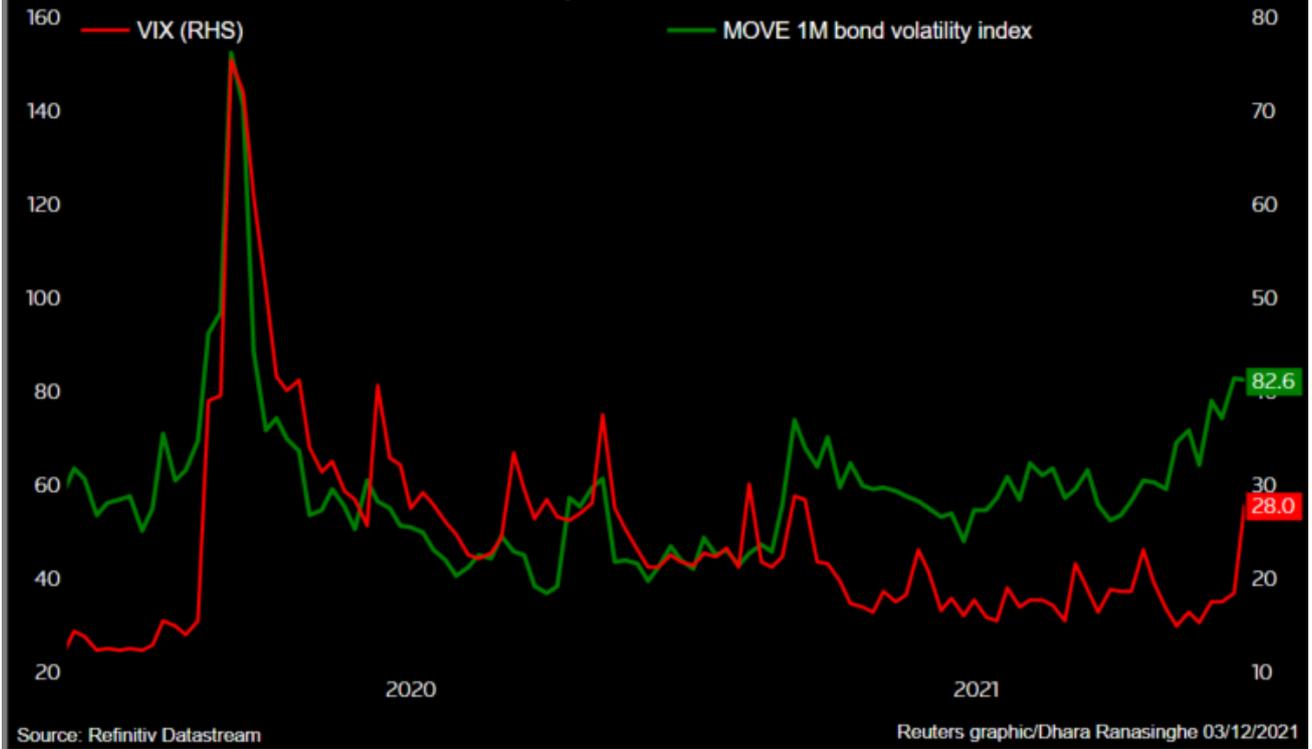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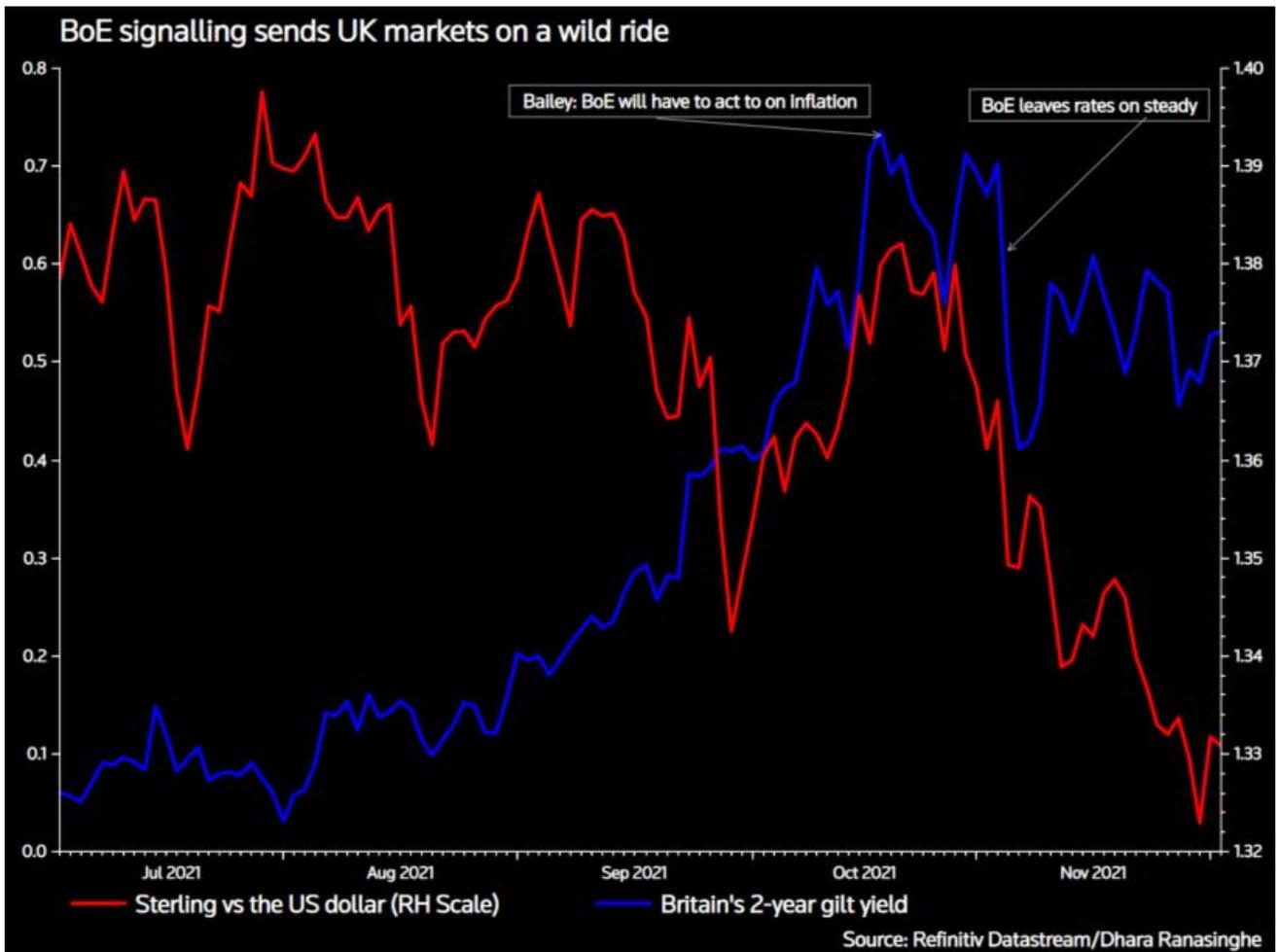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an central banks calm volatile markets?

VIX index versus MOVE bond volatility index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